

내년부터 축산물 사료에 항생제 사용 금지

내년부터 고독성 농약과 축산물 사료에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3월 29일 민승규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농식품안전자문단회의를 개최해 2010년도 식품안전 중점 추진계획 및 원산지 표시 확대 방안 등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으로 메타, 프리건 등 고독성 농약 3종을 사용금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고독성농약 전면 금지하고, 안전성 부적합 비율이 높은 8개국 20개 수산물 품목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투명한 정보소통을 위해 농수축산식품 위해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언론 브리핑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농수축산식품 위해정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분기별로 실시하기로 했다. 첫 번째 언론브리핑은 오는 4월중에 있을 예정이다.

언론브리핑의 내용은 수입품을 포함해 농수축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내역 및 조치사항, 원산지 단속 실적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인 공개대상과 수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4월초 확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농수축산물 위해정보가 각 산하 기관별로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으나 접근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기 언론 브리핑을 통해 농수축산식품 위해정보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업체, 직영농가 지키기 '쟁걸음'

낙농대책과 관련 생산자 단체에서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직영 농가를 지키려는 유업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직영농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한 유업체는 최근 5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직영농가들에게 사료값 보전 등의 명목으로 무이자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금의 경우 상환기간이 24개월로 지난해 10월부터 대출이 시작됐기 때문에 최소 2년간은 농가들이 집유주체를 바꾸거나 하는 등의 농가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또한 이 유업체의 경우 계통사료를 쓰는 농가들에게는 기준량의 120% 물량까지 정상유대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도의 한 농가는 "유업체가 농가들에게 이렇게까지 수혜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집유일원화 등이 공론화 되면서 직영농가들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분명하다"며 "일부 유업체에서도 자금을 푼다는 소문이 무성하며 매이저 유업체 중 한군데는 특수우유 집유 등을 이유로 직영농장 집유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소 귀표관리 허점 보인다

농가에서 사육된 한·육우가 도축·가축시장 등 유통 단계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귀표 빼돌리기 등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 보완책이 시급하다.

최근 경북 안동에서는 브루셀라병 감염으로 도태권을 받은 농가의 한우 19마리 가운데 두마리가 빼돌려져 다른 농가에서 사육된 것이 발각돼 운송업자와 농가 등이 구속된 사례가 발생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소를 빼돌린 농가가 운송업자와 짜고 귀표까지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운송업자와 중개상인 등이 소를 도축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귀표를 빼돌려 다른 소에 부착하는 등의 음성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축산 관계자들의 증언이 사실로 판명된 것이다.

이력추적제를 담당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관계자는 "소에 부착된 일반 귀표(인쇄형)는 쉽게 떨어지지만 단추형 귀표의 경우 고의적인 목적으로 떼지 않는 이상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면서 "귀표 두개가 모두 떨어질 경우까지만 단속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은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

라고 밝혔다.

결국 지자체 방역기관이 도태편고를 명령한 소가 도축장까지 제대로 이동했는가를 제대로 점검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인 셈이다. 또 유통단계에서 다짐육 등은 여러 소에서 나온 고기에 대해 묶음표시를 하도록 돼 있는 점을 악용해 귀표가 없거나 잘못된 이력정보를 지닌 소에서 나온 쇠고기를 고의적으로 넣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충북지역에서는 한우 소비 촉진 홍보행사를 위해 도축됐던 것으로 신고된 소가 도축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대규모 사육농가나 한우를 위탁사육하는 경영체에서는 귀표 관리 소홀로 여러 마리에서 귀표가 떨어져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자칫 실수로 이력기록이 뒤바뀐 귀표가 부착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송아지 출생신고 때 어미소의 개체식별번호가 함께 등록된 경우에만 접수해 주는 전산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해 귀표 빼돌리기와 허위신고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우유업계 대박?...가격 올리니 매출 20% 쏙쏙

유(乳)업체들이 지난해 가격인상 효과를 톡톡히 봤다.

3월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업체들의 우유 매출이 일제히 20% 이상 늘어났다. '레드오션'으로 불리던 흰우유의 판매량이 늘고, 고가인 저지방 우유와 유기농 우유의 비중이 늘면서 수익성도 개선됐다.

남양유업(527,000원 1000 -0.2%)은 지난해 우유 매출이 약 380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700억 원

(22~23%) 가량 매출이 늘었다. 지난 2008년 원유 가격이 21% 가량 인상되면서 우유제품 가격을 20%가량 올린 게 주효했다. 남양유업은 우유의 매출비중이 35~37%에 달한다. 우유 매출이 늘면서 지난해 전체매출도 14% 늘어 창립 이후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매일유업도 우유 매출이 20% 이상 늘었다. 특히 가격인상 효과에 김연아를 모델로 내세운 저지방 우유의 인기로 판매량이 4%나 늘었다. 덕분에 지난해 전체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83%, 77%씩 증가하면서 손익 구조도 개선됐다. 매일유업은 이 같은 실적 호전에 김연아와의 모델 계약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번계약이 체결되면 마진이 박한 유업계 최초로 무려 15억원의 모델료를 투입하는 사례가 탄생된다.

서울우유도 지난해 우유 판매량이 늘어났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전년 대비 판매량이 3% 감소하며 약세를 보였지만 하반기에 제조일자 표기제도를 시행하면서 연간 전체 판매량은 1% 늘어났다. 매일유업이 납품하던 거래처인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서울우유가 가져간 것도 작용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우유소비인구가 정체되는 추세인데다 서울우유는 업계 1위로 생산량이 많아, 1%의 판매량 증가도 양호한 실적"이라고 밝혔다.

우유업체들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담합 조사를 받고 있어 표정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모처럼 우유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메이저 3개사 이외의 '마이너리그'도 뜨거워졌다. (㉮)

〈출처: 축산신문, 농축산신문, 농어민신문, 농민신문 등〉

